

“아이들 성장으로 증명”... 기초학력·마음건강 강화 방점

정근식 2기 서울교육 출범

공교육 내 학습격차 진단·지원 부적응, 정서·사회성 회복 나서 현장 경험, 정책 연계 교육행정

“서울교육을 말보다 실천으로, 성과보다 신뢰로, 정책보다 아이들의 성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제2기 임기를 시작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앞으로 4년간 서울교육이 집중할 과제로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인공지능(AI) 시대의 인간 중심 교육,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협력 행정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이 밝힌 서울교육의 방향은 기본은 깊게, 협력은 넓게, 행복은 가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제2기 임기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놓인 ‘기본’은 기초학력과 기본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학생들이 학교급이 올라 갈수록 학습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공교육 안에서 조기에 진단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더 촘촘히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모든 아이가 삶을 살아가

는데 필요한 배움의 토대를 공교육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아니라, 유아기부터 배움의 출발선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시민성을 기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기초학력은 모든 배움의

출발”이라며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마음건강 역시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기본 영역으로 다뤄졌다. 정 교육감은 마음건강을 “아이들의 성장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초”라고 했다. 학습 결손과 정서적 어려움이 맞물려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학습 지원과 정서 지원을 함께 살피는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학교 부적응, 정서·사회성 회복, 고위험 학생 지원은 2기 서울교육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과제다.

AI 교육에서는 기술 활용보다 사람 중심의 교육을 앞세웠다. 정 교육감은 “AI를 배우는 교육을 넘어 AI 시대에도 더욱 인간다운 교육을 실천하겠다”며 “디지털 기기 활용이나 코딩 교육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읽고 생각하는 힘, 공감과 협력, 책임 있는 시민성을 학교교육의 중요한 역량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도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현장의 경

합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교육행정을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동계획·공동실천·공동평가를 바탕으로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교육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협력 주체로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학교와 가정을 “한 아이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교육공동체”라며 “학부모를 교육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학교와 가정의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자치구와의 협력 구도도 넓혀겠다고 강조했다. 돌봄과 복지, 안전, 문화·생태 교육 등 학교 안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지역 자원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교권 침해와 생활지도 어려움이 커진 학교 현장에 대해서는 교직원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여의도공원, 문화·생태 거점으로 변신

서울시, ‘재조성 마스터플랜’ 공개 제2세종문화회관 연계 재편 내년부터 2030년까지 공사 추진

서울 여의도공원이 한강과 셋강, 제2세종문화회관을 잇는 문화·생태 거점으로 재조성된다. 공원 중심부에는 대규모 문화행사를 열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마련되고, 주변 도로와 공원 경계부는 보행과 휴식이 가능한 선형공원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여의도공원 재조성 마스터플랜을 1일 공개하고, 이달 중 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2027년부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공사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2030년까지 시민 불편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새로 들어서는 제2세종문화회관과 연계해 여의도공원을 문화활동과 휴식, 생태 체험이 가능한 미래형 공원으로



여의도공원 재조성 마스터플랜 조감도. /서울시

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재조성 대상지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지를 제외한 19만5539㎡다. 서울시는 기존 공원의 식생과 지형, 수계 등 생태 자원을 최대한 살리면서 공원 내부와 주변 도시 공간의 단절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새 여의도공원의 핵심은 공원을 ‘세 겹의 구조’로 다시 짜는 것이다. 중앙에는

대규모 열린 공간인 ‘여의도플랫폼’을 조성해 공연, 축제, 시민 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수용한다. 이 공간은 제2세종문화회관과 생태숲을 잇는 공원 중심축 역할도 맡는다. 공원 동서 방향에는 두 겹의 선형 공원이 조성된다.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기업의 ESG 참여와 시민 참여를 결합한 ‘여의도공원 컨서번시’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은 공원 프로그램 후원 등에 참여하고, 시민은 공원 가꾸기와 운영 프로그램에 함께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번 재조성 계획은 서울시가 실시한 ‘여의도공원 재조성 설계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사람과나무(주) 외 2개사의 ‘함께 가꾸는 여의도공원’을 최종 선정했다. 당선팀에는 설계용역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이현진 기자

광주시 中소, 동남아 690만弗 수출상담 성과

태국·말레이시아 ‘시장개척단’ 운영

광주시 지역 중소기업들이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6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동남아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시는 이번 상담 성과가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지 마케팅과 바이어 발굴을 연계한 후속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026 동남아 시장개척단’을 운영한 결과, 모두 77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690만 6000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약 262만 달러 규모는 계약 추진 단계까지 이어져 추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광주시 소재 제조업체 8곳이 참가했다. 참가 기업들은 현지 바이어와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며 제품 경쟁력을 소개하고 시장 수요를 확인했



광주시 동남아 시장개척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다. 상담 품목은 식품을 비롯해 산업용 기자재와 제조설비, 포장재 등으로 다양했으며, 일부 바이어들은 견본 제품 테스트와 공장 방문, 추가 협의를 요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로는 방콕에서 40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쿠알라룸푸르에서는 37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현지 기업들과 모두 5건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해 향후 거래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경기)=유진재 기자 yujin@

경기도 유망 스타트업 투자매칭 60건 성사

경기도-경과원 ‘Invest Connect 1차’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도내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투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며 60건의 투자 매칭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지난 30일 성남 판교 경기스타트업브릿지에서 ‘Invest Connect 1차’를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투자기관 간 총 60건의 투자 상담 및 비즈니스 매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Invest Connect’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

는 ‘2026 경기 스타트업 서밋(G-SUMMIT 2026)’을 앞두고 연중 운영하는 공식 투자 연계 프로그램이다.

‘경기 스타트업 서밋’은 경기도와 경과원이 지난 2024년 처음 선보인 국제 스타트업 박람회, AI와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스타트업 30개사와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투자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하나벤처스, 미래이셋벤처투자, 포스코기술투자 등 국내 주요

투자기관 15개사가 참여해 투자 및 사업 협력 가능성을 집중 검토했다.

사전 모집에는 창업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스타트업 130개사가 신청해 약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행사는 기업설명회(IR) 피칭과 1대1 비즈니스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 기업들은 사전 IR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발표를 준비한 뒤 핵심 기술과 비전을 소개했으며, 투자기관은 사전 검토를 거친 기업들과 30분씩 총 4차례 상담을 진행해 모두 60건의 투자 매칭을 성사시켰다.

일부 스타트업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업협력 논의로 이어지는 성과도 거뒀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5 | 해질 / 19:57

7월 2일 (木) 음력 : 5월 18일

수도권 날씨 22~3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9/30, 동두천 19/30, 가평 19/30, 파주 19/30, 서울 22/31, 양평 20/31, 인천 22/29, 수원 22/30, 용인 22/30, 평택 20/3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 시진핑, 창당 기념 행사서 “대만 독립 분열세력 타격해야”

▲ 러시아, 핀란드 등 나토 3국과 철도국경 잠정폐쇄

/사진 뉴시스

▲ 우크라이나, 러시아 핵심 통신위성시설 타격...전쟁 종식 압박

▲ 日 도쿄, 내년 4월부터 숙박세 3% 정률제 시행

▲ 레오 14세 위기...전통주의, 교황 승인없이 서품 강행

▲ 오만, 미에 호르무즈 통행료 대신 서비스 부과 제안